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9호 [루게 제 25172호] 주제 105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당원들이 앞장에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의 돌격로를 열어나가자

지금 온 나라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으로 새겨져 있다. 전진하는 대오의 앞에서 혁명의 생명을 지키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총정의로 높이 받들어 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원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죽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신념, 혁명배짱, 혁명투지를 지니고 당중앙을 따라 영연히 한 걸음 가려는 우리 당원들의 각오와 의지는 올해의 총진군에서 더욱 굳어져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이 당중앙과 사상도 승경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수령의 유호관철전, 당정책을 옹위하는 선봉에서 백혈불굴의 돌격투사, 전진의 나팔수,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서의 혁명적기개를 남김없이 펼쳐나갈것을 바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에서 당원들을 분발시켜 그들이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들 속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원들이 부름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안겨 주신 고귀한 정치생명인 백두산주체형의 혁명가들의 가장 값높은 영예가 새겨져 있다. 로동당원은 언제 어디서나 대중의 앞장에서 사색을 해치고 역경을 이겨내며 폭풍처럼 내달리는 혁명가이다. 당원들의 피눈물의 슬픔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도 우리 로동당원들의 피눈물은 붉은 당기가 휘날리는

가 빨라질수록 시련과 난관은 그만큼 커지지만 된다. 혁명에는 사계절이 없다. 그러나 우리 당원들이 분발하면 임팩트하고 팽팽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 우리 혁명앞에 놓인 험난한 장애물과 지름길은 다음이 아닌 로동당원들이 열어나가야 한다. 경제장성의 예비도 당원들의 심장속에 있다. 당원들 모두가 한마음뜻이 되고 정의로 굳게 뚝지 노드쳐 전진할 때 점령 못할 요새, 뚫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총공격전은 로동당원들이 앞장에서 전진로를 열어나가야 할 정서이다. 모든 당원들은 위대한 백두명령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안고 똘똘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잃지 않고 파시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

백혈불굴의 붉은기정신으로 당과 혁명을 결사옹위하는 전위투사자가 되자, 이것이 우리 당원들이 심장깊이 새겨야 할 신조이다.

우리의 붉은기에는 일심단결의 철학, 혁명보위의 신념이 새겨져 있다. 로동당원들이 붉은 당기앞에서 다진것은 수령의 맹세이며 가장 신성시상 <적기>를 부르는 굳건한 수조절 불변의 혁명신념이다.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을 지닌 우리 혁명의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도 우리 로동당원들의 피눈물은 붉은 당기가 휘날리는

대중의 혁명정, 투쟁열, 애국열을 최대한 분출시키는 사상적기구가 되자, 이것이 우리 당원들이 계속 전진하여야 할 활동방식이다. 사상은 혁명의 원동력이며 우리 당의 가장 위대한 무기이다. 로동당원들에게 있어서 사상의 무기를 메고 나아가야 할 때,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도 우리 로동당원들의 피눈물은 붉은 당기가 휘날리는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고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대중의 혁명정, 투쟁열, 애국열을 최대한 분출시키는 사상적기구가 되자, 이것이 우리 당원들이 계속 전진하여야 할 활동방식이다. 사상은 혁명의 원동력이며 우리 당의 가장 위대한 무기이다. 로동당원들에게 있어서 사상의 무기를 메고 나아가야 할 때,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고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고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이제 당원들은 영광스러운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고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고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고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고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고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고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고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고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고 혁명적 열을 올리고 혁명적 열을 올리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웅대한 본분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1980년도에 전국적인 100일전투대회는 공업총생산액적으로 9월 30일에 끝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그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2% 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 투쟁의 불, 혁신의 불, 위훈의 불을 달고 당원들의 역할과 배려를 생각할 수 없다. 전진, 집중공세, 투쟁전선의 방방불불하며 항일의 현전관리를 해쳤고 투사들의 넋을 이은 전진의 당원용사들이 결전의 길에서 당원들을 피로 물들이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분자분자들을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로 처참히 전후의 로동계급당원들, 80년대의 김철, 차광수가 되자고 해치며 당 제6차대회정신을 유지하고 빛나게 구한 수백만 당원들의 심정에 고동된것도 붉은기정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하노이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웬 푸 쩡 동 지

나는 월남공산당 제12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신이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다시 선지되었거 판하여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당신이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다시 선지되었은 당시에 대한 귀 당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벗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사회주의공동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속에서 계속 튼튼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당원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김정은

주제 105(2016)년 1월 2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주창혁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을 표시하여 28일 고인의 명전에 화환을 보내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수무단한 영광과 신성시되었다. 인민배우 주창혁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시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 종업원들의 결기모임이 28일에 진행되었다.

리무제육상, 관계부,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지배인 권순준의 보고에 이어 책임기사 신현주, 도안가 한진성, 작업부장 김강선 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상을 찾으시어 현대화정형과 생산실제, 제품의 가치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론했고 그에 기하여 하신 말씀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개진된 공장에 위대한 장군님을 한번 모시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자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 종업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의 식료공업을 더 높은 단계로 도약시킬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하시며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에서 계속 자랑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멋쟁이공장으로 전변시켜주시고 또다시 찾으시어 이 나날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없는 사랑

에 더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향상을 천만가지 국사기운에서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시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정성회의 통용을 더욱 힘차게 실현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

슴없이 간직하고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켜 식료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감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세계가 부여하는 우리의 의무를 만들어내려는 야심만만한 배짱으로 <금집>의 상표가 붙은 세계적인 명제품들을 내놓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랑의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고 더 힘차게 일머리는 길이라 여는 것을 명심하고 서로의 지혜와 뜻을 어김없이 바쳐 체육인들

의 영양관리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대량생산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보급을 통한 과학기술습득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정보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승고한 인민사상이 어리둥은 일머리에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세상에 제일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하여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유호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시말씀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 영웅청년 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당 및 국가 표창 수여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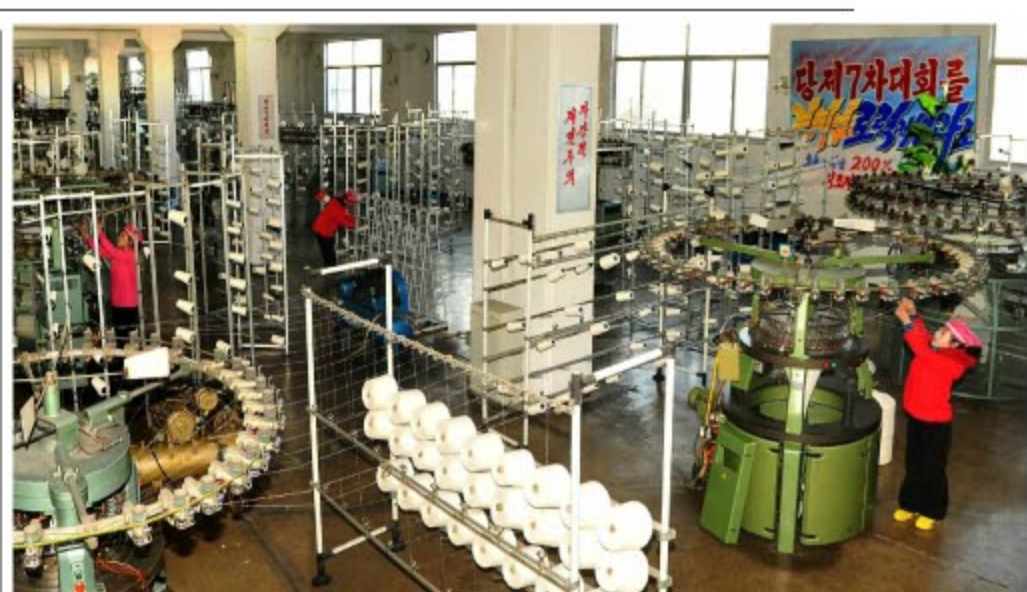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승고한 뜻 높이 받들고 질 좋은 편지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선교련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문규 찍음

《산림 조성사업을 잘하자면 무엇보다도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산림복구전투승리는 양묘장에서부터 마련된다

《산림복구에서 전변의 세 력사를 창조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받아안은 강계시 일군들은 끌어오르는 감격과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산림복구전투에서 나무모심기를 성과적으로 하는것으로 강계정신을 창조한 사람들의 투쟁분배를 보여준다.

이렇게 결심한 그들은 나무의 상품보장을 중시하고도 정하고 자연과의 전쟁에서 앞번저 승전고를 울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모를 키우는것은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는 양묘장에서 나무모생산은 어떻게 따르느냐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시일군들이 산림복구전투작전을 펼치면서 잘한것은 우선 양묘장에서부터 나무의 상품보장을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것이다.

그 실례의 하나가 훌륭한 대용비료와 느름팽이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나무모와 심은 나무의 상품보장을 높일수 있게 한것이다.

지난해에도 시에서는 7일동안 계획된 나무모 다 심을 목표를 세우고 구룡강에서부터 나무모심기사업을 한데 이어 시당 위원회 집행위원들이 한계 지구씩 달아가고 현지에서 나가 지

도사업에 앞서우면서 총화평가 사업을 따라세웠다.

그런데 산에 심은 나무의 상품보장은 차이가 있었다. 실례로 신흥, 장자, 내룡지구의 나무들은 상품보장이 높은 수준에서 생산하였는데 다른 지구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무모를 키우는것은 산림복구사업의 첫 공정이라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시책임일군들은 신흥지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알고보니 이곳 산림감독원과 산리유안원들은 대용비료를 생산하여 정묘당 20리씩 실어내고 나무모를 키웠다. 이때 전기 기름과 소금, 소석회, 요소비료, 부식토 등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무지놓고 비닐막을 씌웠다. 그리고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물레에 흙을 덮어 숙성시켰다.

그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겨울철에는 눈우에 이 비료를 뿌려주었다. 이렇게 하니 햇빛에 눈이 녹으면서 비료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나무모의 생육이 더욱 좋아졌다. 따라서 나무모가 짧은 기간에 기준보다 평균 7~10cm, 최고 15cm까지 더 크고 신통하게 자랐다.

나무모를 싹하게 키웠다고 해서 심은 나무의 상품보장이 저절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방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느름팽이를 리용하면 상품보장을 높일수 있다는데로 초점이 모아졌다.

그것은 점성이 낮은 강팽이가 무에 느름팽이를 섞어 죽을 만든 원리에서 착상한것이었다.

느름팽이를 풀이 점성이 생긴 액체에 나무뿌리를 담그었다가 운반하면 뿌리가 오랜 시간 젖은 상태를 유지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시험을 해보았다. 느름팽이 1kg을 10L의 물에 풀고 나무뿌리를 그 물에 잠그었다가 꺼냈다. 시간이 지나니 흙 덩어리만 뿌리가 마르지 않았다. 성공이었다.

시책임일군들은 모든 산림감독원들에게 이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었다. 이때 그들은 나무모는 전쟁승리를 담보하는 총포탄과 같으므로 물을 들어야 한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대용비료생산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결과 시안의 모든 산림감독원들과 산리유안원들이 나무의 상품보장을 양묘장에서부터 보장하기 위한 투

쟁에 떨쳐나섰다.

시책임일군들이 또 한가지 중시한것은 나무 한그루한그루는 총탄과 같다는 관점에서 올해 10여만그루의 좋은 수종의 버드나무를 심을뿐아니라 상품보장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는데 힘을 넣은것이다.

원래 지난 1월초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일군들은 버드나무가 제한되어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장 책임일군들은 그들의 의견을 따를수 있었다.

사실에서 버드나무모를 가

지삼목의 방법으로 키워보자. 이렇게 결심한 그는 사무실의 해빛이 잘 비추는 곳에 모판을 만들고 이 나무가지들을 꽂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은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후 시에서는 수백명의 당 및 행정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이날 버드나무가지를 삼목한 나무함과 나무가지, 직판들 등을 몰아본대 이어 복회전집까지 본 일군들이 저마다 사무실과 가정에서 이 나무모를 키우겠다고 하였다. 이 나무는 번식시키기

위운것은 물론 한해에 4~5m씩 자라며 여러 측면에서 쓸모가 많기때문이었다.

이날 보여주기사업의 실패는 대단히 컸다. 그후 사무실들과 가정집에 《양묘장》이 생겨나 불철에 수심0m에 자란 10여만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을수 있게 된것은 물론 상품보장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현실은 어느 단위에서나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는 양묘장에서부터 마련된다는 관점에서 나무의 상품보장을 높이는 사업에 선착적인 힘을 넣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 창 길

벽성군 산림경영소에서

그 어느 양묘장들에서나 산림복구에 필요한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그러나 결과는 서로 다르다. 나무모들을 싹하게 키우는 담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위들도 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린 나무모를 심어 거둬오리 자꾸우기까지는 많은 품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벽성군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 시기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들 대대적으로 심었다. 하지만 나무모생산은 계획했던것보다 늦게 하였다. 빈그루가 생겼고 같은 수종이라고 해도 총화가 생겼었다.

이 사실을 놓고 일군들은 생각이 많았다.

당에서는 양묘장은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같다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불발을 모르는 탄약과 같이 든든한 나무모들을 생산하여 당의 요구를 관철하자면 나무모기르기의 첫 공정은 종자싹내기에서부터 혁신해야 한다.

이런 함의에 도달한 그들은 산림부문 과학자들과의 면담에 방도를 찾았다.

그 과정에 싹내기들을 높일수 있는 저온처리방법을 받아들여 되었다.

이 방법은 종전의 속성처리방법보다 기술공정이 복잡하지 않

았고 안전하게 싹내기들을 할수 있었다. 종자를 깨끗한 물에 24시간 담그었다가 젖은 모래와 섞어서 일정한 두리으로 펴고 그우에 판자를 덮어주면 되었다.

이때 처리장의 온도 0~5℃정도 보장해주었다. 여기서 그들이 잘한것은 저온처리기간을 수종별로 따라 다르게 정한것이었다.

나무종자마다 껍질의 두께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종자가 잠자기단계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처리하여야 했다. 그러하여 껍질이 굳은것은 3개월동안, 그보다 얇은 세일소나무와 창성이갈 나무종자 등은 1개월간 싹내기하였다.

이 방법이 확증되었다. 이 방법을 받아들여서부터 싹내기율이 10% 더 높아졌다. 지난 시기 빈그루와 총화가 생긴 하얀 현상들이 극복되고 나무모생산량을 늘일수 있게 되었다.

산림복구전투를 승리적으로 계속할수 있는 과학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싹내기율을 10% 증가, 이것은 이월처벌 당정책의 전수율로 끌어올려야 할것이다. 이 방법을 받아들여서부터 싹내기율은 10% 더 높아졌다. 이 방법은 종전의 속성처리방법보다 기술공정이 복잡하지 않

전 명 일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산림과학원 애국수목조직배양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식물성장촉진제리용으로 찾은 예비

래천군 산림경영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은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같습니다.》

전장,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시적인 신사상을 받아안은 래천군산림경영소 일군들의 가슴은 새차게 끓어오르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나무모가 총포탄이런 양묘장은 그것을 보장하는 군수공장과 같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지백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눈이 내리는 나무모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지난해 50%의 나무모발에 도입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식물성장촉진제를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해 해당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처음으로 나무모생산에 이 촉진제를 리용하였다.

나무모는 전쟁승리를 담보하는 총포탄과 같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나무모심기에 앞서 먼저 300L의 물에 1kg의 이 촉진제를 풀고 상성이야 나무종자, 세일소나무종자와 같이 껍질이 얇은 종

자들을 일정한 시간 잠그어놓았다가 뿌렸다.

다음은 종자를 모래와 섞은 다음 흙을 덮어보면서 싹내기율을 하였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군들은 물론 기술자, 종업원들도 이 촉진제에 대한 과일이 없었다. 일부 종업원들은 나무모를 키우는 공정이 더 복잡해진다 하거나 이 촉진제리용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자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기대가 달려졌다. 지난해 시기보다 싹이 7일이상 빨리 트는것은 물론 실수율도 훨씬 저하되였었다.

나무모생산량을 높이는데 산림복구전투승리의 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나무모발에 질 좋은 거름을 한배 더 많이 넣었다. 그들은 종자를 모래와 섞어 무지놓고 3월에 식물성장촉진제리용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촉진제에 대한 상식이 부족함에 맞게 기술학과 기술인들을 초청하여 모두가 신심을 가지고 나무모생산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심화한 당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과학적인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오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올해 나무모생산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적가치가 있고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에 맞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육성하여 널리 퍼지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라 합니다.》

밤나무를 많이 심으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이다.

밤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많이 들어있다. 또한 밤나무는 열매, 목재 등이 여러모로 귀하게 쓰이고 꽃에는 꿀이 많아 꿀원천식물로 리용된다.

실용적용, 개발용종류들을 비롯한 산림과학원 경제림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종전의 밤나무를 수확성이 높으면 서도 빨리 자라는 우량종종으로

씨앗이 되고 밀거름이 되여

산림과학원 경제림연구소에서

개발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여러 품종의 밤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미시험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수령의 유훈판철전을 생명선으로 품어인 이들은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 현장시찰을 통해 종전의 밤알보다 당분함량이 많고 병해충전달성이 강하면서 수확량이 높은 밤종종을 육성하고 야말았다.

새로 육종한 품종의 밤나무는 나무모가 잘 자라 밀거름이 되는 7~8일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려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시기에는 밤종자를 심어 놓아나온 접그루에 밤나무가지를 절뚝이끼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런 경우 3년후에야 산에 심어 열매를 맺게 할수 있었다.

그러나 종자싹내기방법은 접한 당대에 산에 심을수 있으며 더우기 그해 가을에 열매가 달리게 하였다.

이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의 기관사가 될 각으로 떨쳐나섰다.

온산, 청단, 배천, 온건군을 비롯하여 새로운 지방들을 받아들인 여러 군데에서는 나무모생산량을 3~4배이상으로 높였으며 로역과 자재, 세배면적 등을 60%정도의 절감하면서 야말았다.

은산밤나무목종장만 놓고 보아도 이 방법을 받아들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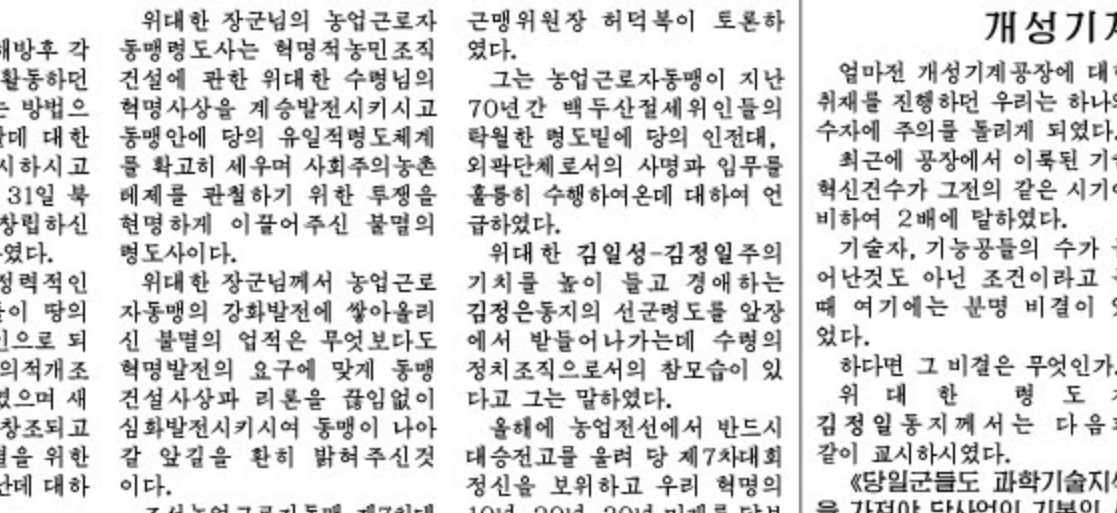
1500평의 면적에서 1년동안에 10여만그루의 밤나무모를 생산하였다. 이전에는 이만한 나무모를 생산하려면 3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였으되 그것도 3년후에야 결실을 볼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높고 빠른 종자싹내기법은 짧은 기간에 방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분발해 나신 이곳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다.

우리 과학자들이 수령의 유훈판철전, 당정책을위전에서 씨앗이 되고 밀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투철한데 황금산, 보물산의 매일이 앞당겨지게 된다.

본사기자 주 창 일

나무모를 키우는데 필요한 질 좋은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나무모를 키우는데 필요한 질 좋은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만경대구역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우량종종의 과일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지혜를 합친다.



우량종종의 과일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지혜를 합친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본원에서- 본사기자 신 흥 혁 찍음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 70돐기념 연구토론회 진행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 70돐기념 연구토론회가 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판계부문, 농공연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을 창립하여 주시고 그 강발전에 쌓아올리신 배두산철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찬탄해 같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병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동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를 밝힌 문본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사회주의적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이며 당과 농업근로자동맹을 련결시키는 인접대입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길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70년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명도밑에 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건설과 활동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여온 영광스러운 역사이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했다.

토론회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70년력사는 배두산철세위인들의 탁월한 명도밑에 혁명적인 대중적정치

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각 지방에서 분신적으로 활동하던 농업조직들을 련합하는 방법으로 농업자동맹을 창립하게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주체35(1946)년 1월 31일 북조선농민조합연맹을 창립하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명도밑에 우리 농민들이 땅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고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 성과적으로 실현되었으며 새로운 농업지도체제가 창조되고 농촌분배의 중추적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전진이 일어났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어 농업근로자동맹을 창립하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농업근로자동맹은 혁명적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값있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근로단체출판사 부사장 김은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동맹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길을 열어 주신것이 틀림없고 농업근로자동맹의 위대한 승수이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했다.

그는 농업근로자동맹창립 70돐을 맞이하는 전제 농공연일군들은 동맹건설에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

군맹위원장 허덕복이 토론했다.

그는 농업근로자동맹이 지난 70년간 배두산철세위인들의 탁월한 명도밑에 당의 인준, 의과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병도를 앞장서서 받들어나가는 참수령의 정치조직으로서의 참모습이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올해에 농업건설에서 반드시 대승전을 올려 당 제7차대회를 준비하고 우리 혁명의 10년, 20년, 30년 미대를 담보할뿐아니라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자라는 당의 의도와 이념을 실현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은 농업근로자들에게 당의 선군병도를 어떻게 받들어 나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준 귀중한 지침으로 된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토론회자들은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자강적제일주의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을 알고 떠밀어주어

개성기계공장 초급당원회 사업에서

얼마전 개성기계공장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던 우리는 하나의 수지에 주의를 돌려주었다.

최근에 공장에서 이룩된 기술혁신전수가 그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2배에 달하였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수가 불어난것도 아닌 조건이라고 볼 때 여기에는 분명 비결이 있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두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당사업의 기본인 사업경쟁력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원만히 할수 있습니다.》

몇해전, 공장에 초급당원으로 새로 임명되어 김창순동무는 과학기술을 단위의 비약발전의 무기로 끌어들이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그는 공장의 기술력량을 발동하는데서 하나의 어길수 없는 원칙을 내세웠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을 알고 사업하자라는것이였다.

일군들에게 그 방향에서 요구성을 높이였을뿐아니라 자신이 먼저 실험항상을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섰다. 바쁜 속에서도 늘

책과 함께 살았고 들끓는 현실 속에서 꾸준히 배웠다.

그는 이렇게 쌓은 실력을 가지고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갔다.

이런 단위에서 매일회수식 가열로를 제작하여 리용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을 때의 일을 높고보았다.

그는 지배인 배상철동무와 함께 진지한 사색을 이어가며 공장실정에 맞게 그것을 자체없이 받아들일 과학적인 타산을 세웠다. 리철동무를 비롯한 기술일군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편지밑에 설계부터 실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선 단위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가열로를 매일회수식가열로로 개조하면서 그 단계에 맞추어 두루뭉실하고 더 발전시켜 품류하여 일한 자동조종장치까지 도입하도록 이끌어나갔다.

그 모습이 가열로조절부에 떨쳐나신 기술자, 기능공들과 3대혁명조직원들에게 얼마나 큰 힘으로 되였는가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3대혁명조직원 리지혜동무가 탄소가스 배출되지 않고 식탄소율이 높은 난로를 제작한데의 사실을 한가지 더 들어보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실현

가능성여부에 대해 머리를 거웃거렸지만 초급당원들은 그 착상을 높고 볼 때 원리적으로 얼마든지 될수 있는 일이라고 단정지켜주었다. 또한 그의 깨끗한 망심을 진주보석과도 같이 귀중히 여겨주면서 새형의 석탄난로제작을 적극 도와주었다.

그러하여 소조원은 마침내 성공의 빛을 보았다. 실리적인 석탄난로가 현실에 도입되게 되었다.

실적이 안받침된 당적지도의 실패는 이렇듯 크다. 그것은 몇백마리의 호소를 대신한다.

공장에 기술혁신의 열풍이 그전과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매일회수식가열로로 개조하면서 그 단계에 맞추어 두루뭉실하고 더 발전시켜 품류하여 일한 자동조종장치까지 도입하도록 이끌어나갔다.

최근에 작성한 기술혁신전수 2배, 이 하나의 수치를 통해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이 있다.

그것은 당일군들의 실험에 따라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실패로 크게 차이나게 된다것이다.

그러나 알고 지도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사기자 리 정 수

그들의 학습 열의가 자살률보다 높을지

지금 자연의 정기는 추운 겨울이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한 이 땅에 열풍이 불고있다. 그것은 바로 온 나라에 새차게 일고있는 전례없는 학습 열풍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당이 통일유격대식 학습열풍으로 활짝 꽃피게 하라야 합니다.>

어디서나 보이고 어느때나 인격어온다. 출퇴근길의 버스나 지하철정차안에서도 손에 책을 들고 열심히 학습하는 사람들.

1월의 첫 풍경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첫 풍경은 어떻게 시작되었던가. 그것을 생각해볼 때면 지난 1월초 온 나라에 펼쳐졌던 첫 출근길의 아침 풍경이 떠오른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세대의 진군을 개시한 사람들의 손에는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들려있었다. 지하철정차안에서도, 무개도전차정류소와 개도전차안에서도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학습하는것으로 이해의 첫 진군을 시작하였다.

기적과 비약의 나라 - 전민 학습 열풍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전민학습의 대진당들에 넘치는 전례없는 독서열풍, 일군도 로동자도 농민도 직심스럽게 독서하고 탐구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열풍의 벽간 숨결...

학습열풍이야말로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밝고 찬란한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또 하나의 풍경이라고 말할수 있다.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혁명승리의 교과서이며 기적창조의 보검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의이며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이다.

누구나 다 자기 부분,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에 정통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을 때 못해낼 일이 없고 안아오지 못할 기적이란 없는것이다. 하기에 금속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원문 그대로 통달한데 이어 자기 단위 사업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우리 당정책을 배와 살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전투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학습하고있다. 이겨 이틀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정책학습 열풍으로 새창이 활짝 열리고 있다. 대야금까지의 구내길에도,

새해농사치리도 드라마협동연아의 로진머리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우리 당정책을 열심히 학습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학습열기가 공기마냥 차넘치는 우리 조국땅이다. 허거늘 온 나라에 불어치는 신년사학습열풍, 당정책학습열풍이야말로 천만군민을 더 큰 기적과 위훈창조로 떠미는 창조열풍, 혁명열풍이 아니겠는가.

미래행차표를 떼자!

정약영앞에서 출발하여 축성의 과학기술전당까지 가는 무개도전차는 운행을 시작하지 얼마 안되지만 벌써 승객이 많고 선승의 하나로 되고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무개도전차를 타고 과학기술전당으로 쉽게 향하고있다.

일터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향하는 곳은 하나인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위대한 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이다. <정말 보람이 쏠린다. 우리 무개도전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단순한 리객들이 아니라 광범한 미래로 앞장서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운행길을 아무리 달려도 힘은 줄 모르겠습다.>

한 운전자사의 말이다. 그는 새해명절부터 무개도전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기때문에 눈코를 새웠어 바쁘지만 그래도 마음은 즐겁기만 하다고 웃음을 지었다.

과학기술전당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드라마 날을 보내고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전당이 문을 연 때로부터 근 한달동안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수는 무려 10여만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우리와 만난 이쪽 일군은 매일 평균 400여명, 어떤 날에는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때가 있다고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과학기술전당의 풍경은 정말 볼만하다고 자랑을 떠날았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속에는 수도의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지방농민들도 대단히 많다. 출장길에 우정 시간을 내어 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방학기간인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온 가족이 함께 오는 손님들도 많다.

세기의 과학, 인류의 과학기술문명이 집대성되고 수차화되어있는 이곳에서 ऐसे 찾아온 귀중한 최신과학기술자료를 찾아보고 너무 기어 아찔함을 느끼고 싶었다. 한 청년과학자의 이 아기도 무심히 들을수 없다.

세기의 과학, 인류의 과학기술문명이 집대성되고 수차화되어있는 이곳에서 ऐसे 찾아온 귀중한 최신과학기술자료를 찾아보고 너무 기어 아찔함을 느끼고 싶었다. 한 청년과학자의 이 아기도 무심히 들을수 없다.

첨단과학기술관에서 우리와 만난 평양건축종합대학의 한 학생은 소문을 듣고 언제부터 온다나 하면서 오늘에야 왔는데 이제야 온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다고, 흘러가버린 수십일이 정말 아깝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과학기술전당의 열성독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것이였다.

문을 연 첫날부터 오늘까지 과학기술전당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활약하였다. 사람들은 붐비는 전자열람실들의 풍경도 볼만 하지만, 이는 진정한 우리 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광범한 미래에로 가는 열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판매소와 같다.

은 나라에 전례없는 학습열풍을 일으키고 천만군민을 지식경제시대의 밝은 래일로 실어다줄 우리의 과학기술전당, 이는 진정한 우리 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광범한 미래에로 가는 열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판매소와 같다.

전례없이 불어치는 전민학습 열기가 가장 두껍게 느껴지는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볼수록 지난 1일 이곳을 찾았으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뜻깊은 말씀이 곱씹다 새창에 가슴을 울린다.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전당의 걸보이인 마치 우주비행선같다고 하는 그 말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은 나라에 전례없는 학습열풍을 일으키고 천만군민을 지식경제시대의 밝은 래일로 실어다줄 우리의 과학기술전당, 이는 진정한 우리 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광범한 미래에로 가는 열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판매소와 같다.

은 나라에 전례없는 학습열풍을 일으키고 천만군민을 지식경제시대의 밝은 래일로 실어다줄 우리의 과학기술전당, 이는 진정한 우리 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광범한 미래에로 가는 열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판매소와 같다.



- 평양방직기계공장혁명사적관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 과학기술전당에서 -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항일유격대식 학습기풍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을 이룬 우리 혁명의 첫 세대인 동시대에 혁명적학습기풍의 승화된 속의 우용물가에서도, 행정군길에도 업 없이 학습하고 또 학습한 항일유격대원들, 전투사이에 진행된 화성학습과 적을 코앞에 둔 곳에서 벌인 군정학습, 형식주의와 독경식 낡은 틀을 마르고 학습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킨 문답식 학습, 수

준에 따라 마련된 식자반과 자습반, 책을 지고다니면서 운영한 행군도서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이러한 혁명적인 학습열풍속에서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배와 살로 새긴 신념의 강자들로 역세게 준비되었다. 이 단두대의 위대한 혁명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치는 강철의 투사들로 성장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배움의 한초한초와 더 좋을 래일

인원의 제한이 없이 학생수가 계속 늘어만 가는 대학이었다. 바로 원건교육대학이다. 이 대학 학생들속에는 어느 한 지방공립의 로동자녀도 없고 농장원도 있으며 일군도 없고 불과 몇년전에 대학을 졸업한 연구사청년도 있다.

교육의 생활력을 충분히 엿볼수 있는 대학이었다. 그날도, 비약의 평야를 향해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공장과 농촌, 탄광과 어촌 그 어디에나 대학이 있고 대학생들이 버리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다. 전례 인원이 그 어디에서나 일일생로 배우며 유능한 인재로 준비되어 떠밀어 나갈 우리 조국의 면모도

말이나 눈부실것인가. 바로 그 광휘로울 래일을 향해 돌진하는 조국의 모습인 양 배우고 배우는 이 나라의 애국자들에 의해 앞당겨진 시간이 펼쳐질것이다.

시대의 문명개화기는 바로 시간을 삶의 친구한 통반자로 여기고 분분초초 아끼고야 배우고 또 배우는 이 나라의 애국자들에 의해 앞당겨진 시간이 펼쳐질것이다.

청산리의 봄은 어떻게 오는가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진행된 문답식 학습경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문답식 학습은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광범한 대중의 학습열의를 높이며 학습에서 집단적일 문제와 동지호상간의 방조를 강화하고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입니다.>

농사치리에 펼쳐나선 농장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문답식 학습경연이 진행되고있었다. 올해에 농장에서는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을 새해농사치리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하나로 결심하고 하면서 일군들은 항상 교조를 이루고있는 열기된 경연장소로 우리를 이끌었다.

일군은 이번 문답식 학습경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대한 학습정령과 새해농사치리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농업과학기술의 습득정형 등을 가지고 작업반별경연의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경연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학습정령과 새해농사치리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농업과학기술의 습득정형 등을 가지고 작업반별경연의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제비날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경연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학습정령과 새해농사치리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농업과학기술의 습득정형 등을 가지고 작업반별경연의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경연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학습정령과 새해농사치리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농업과학기술의 습득정형 등을 가지고 작업반별경연의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경연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학습정령과 새해농사치리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농업과학기술의 습득정형 등을 가지고 작업반별경연의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자질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합격복도인민병원에서 불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보급실에 갖추어놓은 컴퓨터를 배치된 도서들이 예뻐요진듯 눈길을 사로잡는다. 과학기술보급실에는 연구사청년들이 많은 것을 공부하고있다. 그날도, 비약의 평야를 향해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공장과 농촌, 탄광과 어촌 그 어디에나 대학이 있고 대학생들이 버리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다. 전례 인원이 그 어디에서나 일일생로 배우며 유능한 인재로 준비되어 떠밀어 나갈 우리 조국의 면모도

합격복도인민병원에서 불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보급실에 갖추어놓은 컴퓨터를 배치된 도서들이 예뻐요진듯 눈길을 사로잡는다. 과학기술보급실에는 연구사청년들이 많은 것을 공부하고있다.

합격복도인민병원에서 불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보급실에 갖추어놓은 컴퓨터를 배치된 도서들이 예뻐요진듯 눈길을 사로잡는다. 과학기술보급실에는 연구사청년들이 많은 것을 공부하고있다.

합격복도인민병원에서 불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보급실에 갖추어놓은 컴퓨터를 배치된 도서들이 예뻐요진듯 눈길을 사로잡는다. 과학기술보급실에는 연구사청년들이 많은 것을 공부하고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전연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하루일과의 귀중한 학습시간

평양시인민위원회 양어판리국 국장 박경남동무

평양시인민위원회 양어판리국 국장 박경남동무

평양시인민위원회 양어판리국 국장 박경남동무

평양시인민위원회 양어판리국 국장 박경남동무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제54차전연회의 확대회의가 27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협회와 학회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현명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수치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외세와의 공조

미국이 권위에 대한 불복을 드러내며, 동북아시아에서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세계적 총동맹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세계적 총동맹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세계적 총동맹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세에 민족문제 해결을 내달기만 대국들의 팔에 끼워 눈치볼음을 하게 되고 굴종과 예속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수년동안 우리 민족의 과거사가 보여주는 이른바 교훈이다. 그것은 외세의존으로 전방을 부지해가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노상 처하고있는 신세이기도 하다.

최근년간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세계적 총동맹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세계적 총동맹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세계적 총동맹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래하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일본과의 관계문제를 놓고 《파거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수 없다.》고 하면서 《선 사자, 후 관계개선》의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던것이 지난해 8.15를 맞으며 발표한 《경축사》에서는 일본수상의 간교한 말걸기수작에 대해 《주목한다》느니 뭐니 하며 굴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는 일본당국에 야유와 공격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야유와 공격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야유와 공격을 일삼고 있다.

외세에 민족의 리해를 팔아먹으며 권력을 유지하여온 남조선보수파의 대국배척적인 행위는 민족적존엄과 자존심이 어찌있어 보복당하는 지옥스러운 현실을 초래하고있다.

외세에 민족의 리해를 팔아먹으며 권력을 유지하여온 남조선보수파의 대국배척적인 행위는 민족적존엄과 자존심이 어찌있어 보복당하는 지옥스러운 현실을 초래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경우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포기 하고 미, 일, 오스트리아동맹을 택해야 한다는 《남조선배제론》까지 꺼내들었다.

남조선당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경우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포기 하고 미, 일, 오스트리아동맹을 택해야 한다는 《남조선배제론》까지 꺼내들었다.

남조선당국이 외세를 통해 얻고 동족과 대결하는 대국배척의 악습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제 가도 치욕과 망신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외세를 통해 얻고 동족과 대결하는 대국배척의 악습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제 가도 치욕과 망신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반대해 격려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계속 증가해 가고있다.

남조선에서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반대해 격려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계속 증가해 가고있다.

남조선에서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반대해 격려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계속 증가해 가고있다.

남조선에서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반대해 격려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계속 증가해 가고있다.

단 평 절 하 고

남조선당국자들이 그토록 미국상선에 아무굴종하지만 차제지키는것은 늘 팔세와 멸시뿐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토록 미국상선에 아무굴종하지만 차제지키는것은 늘 팔세와 멸시뿐이다.

뺨 맞는다

지난해 미국대사정발사건이 터졌을 때 친미분자들을 총발동시켜 사죄하고 절교를 하며 위로해주었는데 식민지《총독》이 그 《수고》는 알리고도 하지 않고 일본의 편을 들어주었으니 주구들의 심사가 어떠하리라는것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해 미국대사정발사건이 터졌을 때 친미분자들을 총발동시켜 사죄하고 절교를 하며 위로해주었는데 식민지《총독》이 그 《수고》는 알리고도 하지 않고 일본의 편을 들어주었으니 주구들의 심사가 어떠하리라는것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조 남 수

외세에게 민족의 리해를 팔아먹으며 권력을 유지하여온 남조선보수파의 대국배척적인 행위는 민족적존엄과 자존심이 어찌있어 보복당하는 지옥스러운 현실을 초래하고있다.

외세에게 민족의 리해를 팔아먹으며 권력을 유지하여온 남조선보수파의 대국배척적인 행위는 민족적존엄과 자존심이 어찌있어 보복당하는 지옥스러운 현실을 초래하고있다.

사대매국이 빚어낸 치욕스러운 현실

남조선당국의 악습인것만큼 그것이 리해되지 않으면 《위안부지원기금》에 일본이 기부하기로 한 자금을 지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뱀뱀스며를 주장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악습인것만큼 그것이 리해되지 않으면 《위안부지원기금》에 일본이 기부하기로 한 자금을 지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뱀뱀스며를 주장하고있다.

굴욕적인 《합의》는 무효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토록 미국상선에 아무굴종하지만 차제지키는것은 늘 팔세와 멸시뿐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토록 미국상선에 아무굴종하지만 차제지키는것은 늘 팔세와 멸시뿐이다.

자강력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근본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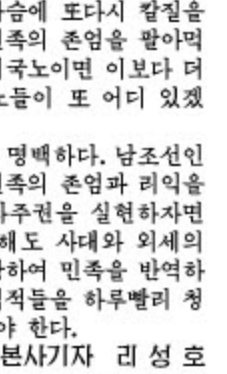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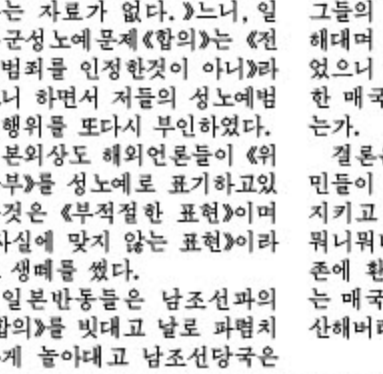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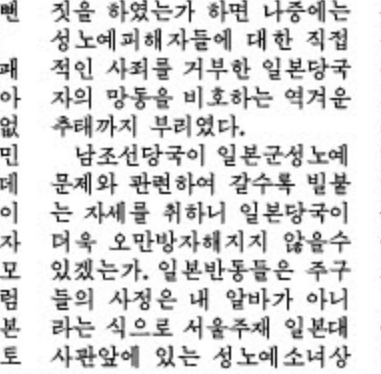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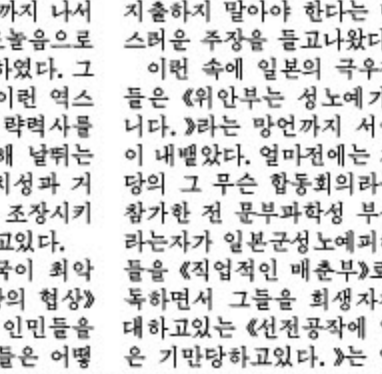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자강의 길에 있다.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자강의 길에 있다.

재일동포회

남조선당국자들이 그토록 미국상선에 아무굴종하지만 차제지키는것은 늘 팔세와 멸시뿐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토록 미국상선에 아무굴종하지만 차제지키는것은 늘 팔세와 멸시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은 지금 현지를 전진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가고 있다.